

한국교회의 위기와 설교학적 한 답변

- 설교자를 중심으로 -

김금용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문제점

1. 설교자의 설교이해 부족
2. 설교와 일치하지 않는 삶
3. 설교를 목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설교자
4. 스스로 설교를 작성할 수 없는 설교자

III. 설교자들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설교학적 답변

1. 기독교설교자로서의 바른 정체성 확립
2. 설교자의 설교 능력 강화
3. 설교자 교육 강화
4. 설교 윤리교육 강화

IV. 나가는 말

• ABSTRACT •

The Crisis of the Korean Church and a Homiletical Answer: Focused
on the Preacher

Kim, Keum-Yong

If one analyzes preachers' problems that have brought the Korean church to a serious crisis, one can find at least the following four points. The first is that preachers of the Korean church run short of understanding on preaching. The second is that preachers' words are not in accord with their deeds. The third is that preachers use preaching as a means of their ministry. The fourth is that some of them cannot compose their sermons by their own efforts.

However these problems must be corrected and overcome. Therefore four important subjects that should be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the preacher are discussed throughout this study. The first is that preachers have to establish their right identity as the Christian preacher. The second is that they must strengthen their ability that is connected with preaching. The third is that the Korean church has to strengthen education for preachers. The fourth is to strengthen the ethical education about preaching.

Key words: the crisis of the Korean church, preacher's identity, preaching ability, education, ethics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를 설교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교회의 설교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즉, 회중들은 한 주에도 여러 차례 설교를 듣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설교자는 매주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메시지의 적절한 기호화(encoding)에 실패하고 있으며, 회중들 역시 설교의 모든 책임을 설교자에게 돌림으로서 말씀의 해독화(decoding)에 실패하고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메시지 자체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으로서 성공적인 설교 커뮤니케이션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¹⁾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위기를 설교의 커뮤니케이션 측면이 아니라, 설교의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 상황은 설교의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쉽게 드러나는 실제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의 위기를 설교를 듣는 회중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곧, 한국교회의 회중들은 대체로 설교이해가 부족하고, 또 편향적인 설교 경향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때때로 설교자의 설교 탈선을 돕기도 한다는 점이다.²⁾

그럼, 한국교회의 위기를 설교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은 모두 완벽한데 회중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설교자들 역시 회중들 못지않게 심각한

1)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바라본 한국교회의 위기적인 요소 네 가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김금용, “한국교회의 위기와 설교학적 답변: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신학이해』 42집(2012), 14-24를 보라.

2) 설교를 듣는 회중 측면에서 바라본 한국교회의 위기적인 요소 세 가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김금용, “한국교회의 위기와 설교학적 답변: 회중의 경청을 중심으로”, 『신학이해』 44집(2012), 103-108을 보라.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³⁾ 그리고 한국교회의 위기가 극복되기 위해서는 설교자들의 문제점들 역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되고, 또 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설교 중심 예배를 지향하는 한국교회의 위기의 중심에는 항상 설교와 설교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없이는 한국교회의 위기적인 요소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므로 본 소고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설교자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또 그 위기 극복방법을 모색(摸索)한다. 하지만 여기서 미리 밝혀 둘 사실은 설교자들의 모든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와 관련된 몇 가지 근원적인 문제점들만을 한정하여 분석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위기 극복 방법 역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들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방법만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접근 방법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보다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II.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문제점

그럼 먼저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한국교회의 위기를 설교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3)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개론』(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1), 32-47.

1. 설교자의 설교이해 부족

설교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교회를 위기로 몰고 가는 설교자들의 첫 번째 문제점은 아마도 설교에 대한 이해 부족인 것처럼 보인다. 즉, 오늘날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은 매 주 교회에서 여러 차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설교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설교자들의 설교 이해 부족이 한국교회를 위기로 몰고 가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설교자들이 이처럼 설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예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상당히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 중 설교 내용을 자신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즉, 오늘날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자주 설교 중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생각은 첫째, ...입니다”나, 전병욱 처럼 “저는 이 라고 생각합니다”⁴⁾와 같은 형식으로 말하는 설교자를 만난다. 다시 말하여 이들은 ‘생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설교의 주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렇다면 기독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설교 중 설교자는 때때로 지극히 부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설교자의 생각은 설교의 주요 부분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 설교는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⁵⁾ 설교자는 설교의 주인이 아니라 전달자⁶⁾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 중 설교 내용이 자신의 생각임을 말하는 설교자들을 통하여 오늘날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이 설교에 대한 정확한

4) 전병욱, 『새벽무릎』(서울: 규장문화사, 1999), 96.

5) 김금용, 『청소년설교의 길잡이』(서울: 콤팩출판사, 2012), 26.

6) 위의 책, 41.

이해 없이 설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설교를 도용하는 경우이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한국교회 설교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도용하여 설교하는 설교자를 만난다.⁷⁾ 그리고 설교자들의 이러한 설교 도용 현상은 설교의 상업적 도구화로 인하여 그 정도가 날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설교자들은 이처럼 설교를 도용하여 설교해도 되는 것일까? 물론 여기서 우리는 설교 도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현실적으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도용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또 도용된 설교가 한 사람의 설교자를 통하여 준비되는 설교보다 내용적으로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을 회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설교자들이 이러한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도용하여 설교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설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설교는 기독교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인격적인⁸⁾ 커뮤니케이션이며, 기독교설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⁹⁾으로서 또 정의로우신 하나님¹⁰⁾으로서 당연히 설교자들에 의하여 선포되는 당신의 말씀 역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도용하여 설교하는 설교자들에게는 기독교설교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7) 김금용, “한국교회의 설교 도용에 대한 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14집(2007), 128-133.

8) Phillips Brooks, *On Preaching*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64), 5.

9)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4), 195-197.

10) *Ibid.*, 203-205.

2. 설교와 일치하지 않는 삶

한국교회의 위기와 관련된 설교자들의 문제점들 중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설교자의 삶이 설교와 일치하지 않는 점이다. 즉 설교자의 설교 내용과 설교자의 삶이 심각한 괴리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¹¹⁾ 물론 대 다수의 설교자들은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자신이 선포한 설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사는 설교자들이 있고, 또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¹²⁾

그렇다면 설교자들은 이처럼 자신이 설교하는 설교 내용과 불일치하는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일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설교자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공의로 우시기¹³⁾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당신의 말씀이 전달되는 말씀 그대로 설교자와 회중들을 통하여 바르게 지켜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회중들에게 정직하게 전달하는 설교자라면 반드시 전하는 말씀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켜야 한다. 만일

11) 정장복, 앞의 책, 40-41.

12) 예를 들면, <뉴스플러스>는 2013년 6월 28일 몇몇 설교자들의 하나님의 말씀과의 전혀 일치하지 않는 행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창립 50주년을 앞둔 서울 금호동의 금호제일교회는 한때 3천명이던 큰 교회였지만 20억원에 이른 카지노 도박으로 인해 담임목사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이로 인해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도 지난 7일 150억 원의 업무상 배임 및 탈세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미국의 모 선교단체에서 북한에 교회를 짓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아 미국 법원으로부터 배상금 16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까지도 했다.” “빨간불 켜진 한국교회 목회자의 현실”, <뉴스플러스>(2013. 6. 28)

13)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4), 75.

어떤 설교자가 자신이 전하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또
는 그녀는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불의한 설교자이거나, 정직하시고 공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은 거짓된 설교자일 것이다.

3. 설교를 목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설교자

한국교회의 위기와 관련된 설교자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정장복 교수가
이미 잘 지적한 것처럼 설교자들이 설교를 목회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
는 점이다.¹⁴⁾ 즉 설교자들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설교를 자신의 목적이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설교자들은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인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단지 자
신의 목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설교자들
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단화된 설교는 교회나 설교
자에게 충성하는 회중을 양산할지는 몰라도 회중들을 하나님의 백성 됨
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한국교회를 위기로 몰고 가는 한 요
인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처럼 설교를 목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설교자들의 유형에
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는 설교를 단지 자신의 목회적인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한국교회를 위기로 몰고 가는 설교
자들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설교를 도용하는 설교자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오늘

14) 정장복, 앞의 책, 41-42.

날 한국교회에는 스스로 설교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설교를 도용하여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있다. 이들은 설교를 단지 목회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도용하여 설교하는 설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설교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¹⁵⁾ 그것은 단지 설교자 자신의 목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전상의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¹⁶⁾ 목회적인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없이 자신의 목회적인 목적에 맞게 설교를 작성하여 설교하는 설교자이다. 이런 유형의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설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자신의 목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각하거나 고안해낸 목회적인 수단일 뿐이다. 물론 이런 유형의 설교자들 중에는 성경의 내용을 충실하게 석의하여 설교하는 설교자도 있고, 또 성경을 벗어나 자신의 인간적인 지식에 의존하여 설교하는 설교자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든지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의 설교내용이 하나님께서 회중들에게 전하라고 성경을 통하여 설교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설교자가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설교자의 주장이나 생각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유형의 설교자들을 너무나 쉽게 만난다.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된 전병욱처럼 비록 성경과 관련된 이야

15) 김금용, “한국교회의 설교 도용에 대한 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14집(2007), 141-145.

16) 오늘날 한국교회의 설교자들 중 설교를 도용하는 설교자들은 설교원고라는 목회적인 수단을 얻기 위하여 보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다른 사람의 설교집을 구입하는 것이다. 둘째, 설교원고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설교원고를 내려 받는 것이다. 셋째, 설교원고 공급업체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매주 또는 필요한 경우마다 설교원고를 공급받는 방법이다.

기를 말하지만 설교가 자신의 생각임을 밝히는 설교자나, 김홍도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본문말씀을 벗어나 자의적(恣意的)인 생각을 주장하는 설교자(17)들이다. 이들의 설교 내용은 보통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설교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성경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이나 심한 경우 성경과 전혀 무관한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온다. 결국 이들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회적인 목적이나 자신의 뜻에 맞는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설교를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비록 때때로 이러한 설교자들로 인하여 부분적으로는 양적인 성장을 경험할 지라도 전체적으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설교를 자신의 세속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설교자이다. 이러한 설교자들은 바로 앞에서 언급된 설교를 목회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설교자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경우이다. 이들은 때때로 목회적인 목적을 넘어서서 설교를 자신들의 세속적인 사리사욕(私利私慾), 즉 지극히 세속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럼 이러한 설교자들의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먼저 돈을 목적으로 설교하는 설교자이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돈인 것처럼 보이는 설교자를 만난다. 예를 들면, 실명으로 이름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교계에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어떤 설교자는 보통 자신을 설교자로 초청하는 교회나 집회에 일정한 금액이상의 사례금을 요청한다. 그리고 자신이 정한 금액 이하의 집회나 교회의 초청은 거부한다. 물론 이런 설교자들에게도 나름대로의

17) 김금용, “한국교회의 위기와 설교학적 한 답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2집(2009), 295-296.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설교 초청 수락과 거부의 절대적인 기준이 돈인 것으로 보아서 그들의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는 분명히 재물인 것처럼 보인다. 둘째,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 설교하는 설교자이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앞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설교자와 마찬가지로 이런 유(類)의 설교자를 쉽게 만난다. 이들은 노회장이나 총회장 등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설교를 즐겨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설교가 자신들이 어떤 자리의 장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교회들이 자신을 설교자로 초청하여 주기를 원하고, 또 자신이 목적으로 하는 자리에 투표권이나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의 목사라면 보통 이상의 많은 돈을 주고 설교자로 초청한다. 결국 이러한 설교자에게 있어서 설교는 자신의 권력이나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셋째, 세습도 불사하는 설교자이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돈이나 명예를 넘어서서 세습도 불사하는 설교자를 만난다.¹⁸⁾ 물론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세습하는 모든 목사들이 자신들의 모든 설교들을 자신들의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설교들 중 많은 부분이, 즉 그것이 세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든지 아니면 세습과는 무관하게 지극히 정상적인 설교처럼 보이는 내용일지라도,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세습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서조차도 거의 용인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¹⁹⁾ 일부 설교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18) “교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바닥”, 〈한국기독교공보〉(2013. 7. 27), 제5면.

19)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목회자의 교회세습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교회의 최대 교단 중 하나인 예장 통합 측의 8개 노회(2013년 7월 16일 기준)가 98회 총회를 앞두고 목회자의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헌의안을 결의한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의한 교회세습 반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않고 세습을 감행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의 세습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도구들 중 하나인 설교가 이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들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에 언급된 예에서처럼 설교자들은 설교를 목회의 수단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설교는 목회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설교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목회의 수단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설교자인 목사는 설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목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설교는 목회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며, 목사의 여러 가지 목회사역들 중 가장 중요한 사역 역시 설교이다. 왜냐하면 갈뱅(John Calvin)이 주장하는 것처럼 설교는 교회의 교회됨의 두 가지 표지 중 하나이고,²⁰⁾ 또 토란스(Thomas F. Torrance)가 잘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말씀사역, 즉 설교를 위하여 목사안수를 실행하고 있기²¹⁾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은 더 이상 설교를 자신들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목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설교자들은 설교 자체를 목적으로 설교해야 한다. 즉, 설교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이다.

4. 스스로 설교를 작성할 수 없는 설교자

앞에서 언급된 문제점들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한국교회의 위기와 관련된 설교자들의 문제점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용은 “교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바닥”, <한국기독교공보>(2013. 7. 27), 제5면을 보라.

20)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ume II*,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Edinburgh: T. & T. Clark, 1875), 289.

21) Ray S. Anderson, ed., *Theological Foundations for Ministry* (Edinburgh: T. & T. Clark, 1979), 423.

만 더 언급한다면, 그것은 상당수의 설교자들이 스스로 설교를 작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설교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는 설교자를 만난다.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한 설교를 도용하는 설교자들 중 상당수는 스스로 설교를 작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잦은 설교 도용이 그들의 설교 작성 능력을 급격하게 퇴보시켰기 때문이다.²²⁾ 둘째, 신학교에서 설교학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설교학 교수로서 지난 10년 동안 관찰한 바에 따르면, 상당수의 설교자들은 최소한의 설교 작성 능력도 획득하기 이전에 신학교를 떠난다. 다시 말하면, 설교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는 상태로 한국교회의 설교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설교자들이 스스로 설교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로 설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 그것은 누가 보아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설교란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의 말처럼 전인격적인 것²³⁾이고, 또 브룩스(Phillips Brooks)의 말처럼 인격을 통하여 진리를 전달하는 것²⁴⁾이기 때문에, 설교는 당연히 설교를 작성할 수 있는 설교자, 즉 인격적인 존재에 의해 행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스스로 설교를 작성할 수 없는, 인격적으로 부족한, 설교자가 설교사역을 감당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브룩스가 자신의 설교론에서 외치는 다음의 말에 특별한 주의(注意)를 기울여야만 한다: “많은 방면에서 무지한 목사들은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아예 없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텅 빈 머리가 열이 오르고 일에 더 열중하면 할수록, 더 말라가고 더욱 열어지고 더욱

22) 정장복, 앞의 책, 36.

23) Martyn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London: Hodder & Stoughton, 1998), 53.

24) Phillips Brooks, *On Preaching*, 서문강 역, 『설교론 특강』(일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23-39.

실속이 없어집니다. 성 프란시스 드 살레(St. Francis de Sales)는 말했습니다. “사제의 지식은 교회의 여덟 번째 성례다.”²⁵⁾

III. 설교자들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설교학적 답변

그렇다면 이처럼 한국교회를 위기로 몰고 가는 설교자들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우리는 설교자들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해법을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짧은 소고에서 가능한 모든 답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주로 앞에서 논의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다음 네 가지 대안만을 제시한다.

1. 기독교설교자로서의 바른 정체성 확립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설교학적으로 설교자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도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너진 기독교설교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바르게 정립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국교회를 위기로 몰고 가는 설교자들을 만난다. 그리고 이들의 문제점들을 분석해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이들이 기독교설교자로서의 정체성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확실한 정체성 때문에, 그들은 설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스스로 설교를 작성할 수 없

25) 위의 책, 50-51.

으면서도 당당하게 설교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설교나 설교자 이해를 바탕으로 설교를 목회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설교와 불일치하는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기독교설교자로서의 불확실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설교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물론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언급된 설교자들이 기독교설교자로서의 정체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그들이 설교에 대한 지식이 전무(全無)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어사전이 정의하는 일반적인 설교 정의에 비추어보면 앞에서 논의된 설교자들은 비록 기독교설교자로서는 부족해보이지만 설교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이나 설교 이해 역시 상당히 긍정적인 면에서 논의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²⁶⁾ 또 필자가 매년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통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평신도들조차도 불완전하지만 나름대로의 설교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평신도들의 불완전한 설교이해나 설교자들의 국어사전적 설교이해에 근거한 설교사역에 만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설교 이해나 설교자 이해로는 앞에서 제기된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도, 또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제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설교자

26)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된 설교자의 문제점인 설교자의 설교와 일치하지 않는 삶이나 설교를 목회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국어사전에 등장하는 설교 정의의 관점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민중 엡센스 국어사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설교는 “종교의 교의를 설명함” 또는 “단단히 타일러 가르침”이라고 정의되는데, 앞에서 언급된 설교자들의 설교는 비록 설교가 목회의 수단이 되거나 설교자의 삶과는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위에서 언급된 국어사전적 설교 정의의 내용은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들은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또 한국교회의 설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독교설교자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설교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기독교설교자들이 설교사역자로 나서기에 앞서서 바르게 확립해야 할 정체성은 어떤 모습인가? 물론 우리는 여기서 다른 종교의 설교자와 달리 기독교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권성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설교자는 바울처럼 성숙한 인격자가 되거나 성령충만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²⁷⁾ 또 바우만(J. Daniel Baumann)이 주장하는 것처럼 설교자는 소명받은 사람, 건강한 사람, 훈련받은 사람, 인정어린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용감한 사람²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기독교설교자가 설교자로서 확립해야 할 정체성의 모습을 탐구할 수 있는 모든 각도에서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필자가 보기에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설교자들이 반드시 인식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기독교설교자로서의 한 가지 정체성만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기독교설교자가 반드시 알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독교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라는 사실이다. 기독교설교자는 말씀의 주인도, 창조자도 아닌,²⁹⁾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고 전달자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몰러(R. Albert Mohler, Jr.)는 설교를 위탁된 의무³⁰⁾라고 말하고, 또 스토트(John Stott)는 메시지

27) 권성수, 『성령설교』(서울: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2009), 297-338.

28) J. Daniel Baumann,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Preaching*, 정장복 역, 『현대 설교학 입문』(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1), 39-58.

29) John A. Broadus,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s*, revised by Vernon L. Stanfield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9), 19.

의 주어짐³¹⁾을 강조한다. 기독교설교자는 위탁되거나 전달하도록 주어진 메시지를 회중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은 위의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회중들에게 가감(加減) 없이 바르게 전달되게 되고 또 가감 없이 바르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회중들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어 회중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함으로서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설교자가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게 될 때, 앞에서 언급된 병적인 양상들, 곧 설교를 목회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설교와 일치하지 않는 삶 등 설교자의 부정확한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문제점들이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설교자들은 전달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함으로서 설교를 목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 전달, 자체를 목적으로 설교하게 될 것이며, 또 설교 사역을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전달에 초점을 맞추게 됨으로서 설교와 불일치했던 삶을 청산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와 일치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설교자의 설교 능력 강화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이 전달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한다면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문제점들은 모두 극복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비록 전달자

30) Michael Duduit, ed., *Handbook of Contemporary Preaching*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2), 13.

31) John Stott, *I Believe in Preaching* (London: Hodder & Stoughton, 1982), 136.

로서의 자기 정체성은 바르게 확립했지만, 설교를 스스로 작성하거나 전달할 능력이 부족해서 한국교회를 위기로 몰고 가는 설교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우리는 설교자들의 문제점들을 살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설교현장에는 스스로 설교를 작성할 수 없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음을 알았다. 이들은 보통 습관화된 설교 도용으로 설교 작성 능력이 퇴보하였거나, 스스로 설교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로 신학교를 떠남으로서 설교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는 설교자로 남게 되었다. 필자는 매년 필자가 가르치는 ‘설교의 실제’라는 과목에서 120명의 학생들 중 상당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설교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학교 문을 나서는 것을 본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으나 한국교회의 여러 신학교들의 현실이다.

이러한 설교 능력 부재는 결국, 설교자들이 계속해서 설교를 도용하게 함으로서, 또 설교 현장에서 자신도 확신하거나 알지 못하는 설교 사역을 수행하게 함으로서, 한국교회를 위기와 혼돈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은 속히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교자에게 필요한 설교 능력을 반드시 확보하거나 강화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설교자들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교와 관련하여 어떤 능력을 강화해야 할까? 물론 여기서 미리 밝혀 둘 사실은 하나 넘겨서 기대하시는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하여 강화해야 할 능력은 수없이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서 그 모든 능력을 상세히 다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한국교회의 위기와 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능력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본다. 그럼, 그 두 가지는 무엇인가?

먼저,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은 설교 내용 작성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교회의 설교 현장에서 설교 내용을 기독교 설교에 맞게 적절히 작성할 수 없는 설교자들을 쉽게 만난다. 예를 들면, 어떤 설교자는 설교 내용을 성경 전체 내용에 맞게 통전적(通全的)으로 작성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작성한다.³²⁾ 그리고 또 어떤 설교자는 말씀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설교 내용을 삼위일체적으로 작성하지 못하고 삼신론적으로, 특별히 아들 중심적으로만 작성한다.³³⁾ 하지만 이러한 설교 내용은 기독교설교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각 내용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통전적으로만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설교 내용 작성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해야만 한다.

그럼 설교자들이 설교 내용 작성 능력을 강화할 때, 설교자들은 설교 내용의 어떠한 부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 설교자들은 설교 내용과 관련하여 최소한 다음 네 가지 측면의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첫째, 설교 내용을 삼위일체적으로 작성하는 능력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분석해보면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삼위일체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데 있다. 즉 설교 내용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three person) 중 어떤 위격의 말씀이든지 그 내용이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적으로 준비되고 전해져야 하는데 설교자들이 설교 내용을 그렇게 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설교 내용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삼위일체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설교자들은

32) 김금용, “한국교회의 위기와 설교학적 한 답변”, 『한국기독교신학논총』62집(2009), 299-301.

33) 김금용, 『청소년설교의 길잡이』(서울: 쿰란출판사, 2012), 97-98.

속히 그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설교자들은 설교 내용을 통전적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 내용의 문제점들 중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점은 설교 내용이 단편적이라는 것이다. 즉 설교자들이 주어진 본문말씀을 성경의 원저자이신 한 분 하나님의 뜻대로 통전적으로 바르게 해석하여 전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전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주어진 본문말씀을 단편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문제점이 없어 보이지만,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오류가 있는 내용을 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단편적인 내용의 설교들이 한국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또 왜곡된 기독교인들을 양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설교자들은 한국교회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성경을 통전적으로 해석하여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논리정연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심각하게 비논리적으로 전개되는 설교 내용들을 만난다.³⁴⁾ 필자는 매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논리정연하게 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학교를 떠나는 것을 본다. 설교 내용의 이러한 비논리적인 전개는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설교 내용을 논리정연하게 전개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회중들에게 바르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논리적인 전개방식으로 전달된 설교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한국교회의 위기를 초래하는, 왜곡된 기독교인들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감 없이 회중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설교자들은 설교할 때, 기독교설

34) 비논리적으로 전개되는 설교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김금용, 『제3의 분석설교의 이론과 실제』(서울: 쿰란출판사, 2011), 60-61을 보라.

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설교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어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어떤 설교자의 설교가 기독교설교로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 메시지의 원천인 본문말씀, 메시지가 본문말씀(the Text)으로부터 왔음을 보여주는 정확한 해석, 메시지의 적용, 서론, 결론 등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³⁵⁾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설교 중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설교 구성요소조차도 갖추지 못한 설교들이 난무한다.³⁶⁾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한국교회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소한 자신의 설교가 내용적으로 기독교설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갖춘 설교가 되도록 부족한 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설교자들은 설교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며 설교의 결실을 맺게 되는 전 과정은 설교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설교의 협력자이신 성령 하나님(God the Holy Spirit)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³⁷⁾ 그래서 스펀전(Charles H. Spurgeon)은 주장한다: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한다.”³⁸⁾ 이처럼 설교자의 설교 사역과 성령 하나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설교자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권성수가 말한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³⁹⁾ 다시 말하면,

35) 김금용, 『청소년설교의 길잡이』, 123-130.

36) 예를 들면, 정장복 교수가 잘 지적한대로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본문 말씀을 떠난 설교들이 난무하고 있다. 설교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이러한 설교들은 한국교회 강단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언급은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적 토론』(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1), 38-40을 보라.

37) 김금용, 『청소년설교의 길잡이』, 42-43.

38) Charles H. Spurgeon, *Lectures to my Students* (Fearn: Christian Heritage, 1998), 219.

39) 권성수, 앞의 책, 58.

성공적인 설교 사역을 위하여 설교자들은 설교자로서 마땅히 필요한 영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설교자들은 영성의 어떤 측면을 강화해야 할까? 물론 설교자들은 설교를 위하여 필요한 영성의 모든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교회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강화할 필요가 있는 영성의 한 가지 측면만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영성의 삼위일체적 측면이 되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즉,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영성은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God the Father)과 예수 그리스도(God the Son)가 삼위일체적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영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⁴⁰⁾ 또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영성은 삼위일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삼위일체적인 영성보다 성령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한 두 위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일그러진(distorted) 영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3. 설교자 교육 강화

그럼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이 전달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설교자에게 필요한 설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직면한 문제점들은 모두 해결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된 설교자와 관련된 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설교자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설교자 교육이 필요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제시된 두 가지 위기 극복 방법 역시 불완전한(imperfect) 개별 설교자의 노력보다 신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

40) Wayne Grudem, *op. cit.*, 1170-1171.

해서 좀 더 쉽게 성취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는 설교자들의 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또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설교자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설교자 교육을 강화해야 할까? 우리는 당면한 한국교회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설교자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첫째, 신학교에서의 설교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신학교들은 정장복 교수가 잘 지적인 것처럼 이론신학에 치중함으로써 설교학과 같은 실천신학을 소홀히 해왔다.⁴¹⁾ 하지만 이론신학만으로 좋은 설교자를 배출할 수는 없다. 신학교가 좀 더 좋은 설교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설교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지난 십여 년 간의 설교학 교수 생활을 통하여 교육 정도에 따라서 학생들의 설교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됨을 보았다. 그리고 때때로 좀 더 충분한 시간과 교육이 있었다면 좀 더 나은 설교자가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학생들을 수없이 보았다.⁴²⁾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설교자들을 신학교에서의 설교 교육 강화를 통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목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설교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신학교에서의 설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의 설교 교육 강화만으로는 이미

41) 정장복, 앞의 책, 25-28.

42) 필자가 속한 신학교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학생들은 '설교의 실제'라는 과목을 통하여 단지 1회의 설교 실제 교육을 받는다. 단지 1회의 설교 실제 교육은 학생들을 좋은 설교자로 만들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인 것처럼 보인다.

신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설교자들의 부족함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설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으나 설교 교육이 필요한 설교자들을 위한 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목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교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별히 과거의 열악했던 신학교 교육 여건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설교학 교육도 받지 못한 설교자들은 반드시 목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필요한 설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설교자 재교육 없이는 한국교회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들 중 하나인 설교자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4. 설교 윤리교육 강화

한국교회의 위기와 관련된 설교자들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방법들은 많겠지만 지면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설교자들의 설교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기독교설교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 중 하나인 설교 윤리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앞에서 제시된 모든 노력들이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는 많은 경우 윤리적으로 상당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남의 설교를 마치 자신이 직접 작성한 설교인 것처럼 도용하여 설교하고 있고, 또 심지어 최근에는 설교 도용을 부추기는 설교 공급업체까지 난립하기에 이르렀다.⁴³⁾ 그리고 자주 신문에 오르내리는 설교자들의 비윤리적인 삶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설교자들을 걱정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

43) 김금용, “한국교회의 설교 도용에 대한 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14집(2007), 132-133.

렸다.

또 어떤 설교자들은 기독교설교자들이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한다. 즉 이들은 비록 때때로 말로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설교에서는 설교의 주요 내용을 ‘바랍니다’ ‘믿습니다’ 등과 같은 술어를 사용하여 서술함으로서 설교의 주요 내용이 설교자 자신의 생각임을 드러낸다.⁴⁴⁾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인간인 설교자 자신의 생각에 불과한 설교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설교자들은 논리적인 서술 능력 결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을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김홍도는 ‘핵폭탄보다 더 심각한 위협’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거짓말의 죄는 현세와 내세에 심판을 받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이 많은 백성이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진실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공산국가는 거짓이 기초된 나라이기 때문에 다 붕괴되었고, 북한도 붕괴될 것입니다...”⁴⁵⁾

즉, 여기서 김홍도는 내용적으로 각 문장의 내용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각각의 문장 내용이 전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내용을 마치 논리정연하게 전개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설교한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문장의 ‘거짓말의 죄’와 두 번째 문장의 ‘정의’나 ‘공의’는

44) 정장복, 앞의 책, 57.

45) “핵폭탄보다 더 심각한 위협”, 〈불기둥〉(2013. 3. 3), 제3면.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논리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 문장의 ‘정의를 물 같이 흐르게 하라’는 내용과 세 번째 문장의 ‘거짓이 많은 백성은 망한다’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논리적으로 잘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한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된 예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설교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는 설교자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설교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하면,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도용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바르게 교육해야 할 것이고, 또 문장의 주어나 술어를 포함한 설교 내용들이 설교자들의 설교 정의대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며, 설교자들의 논리적인 서술 능력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되지 않은 잘못된 말씀 전달까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교자들을 철저히 교육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문시영이 잘 말한 것처럼 오늘날 글로벌 시민사회 속에서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⁴⁶⁾이 사실이라면, 한국교회는 설교자들이 더 이상 비윤리적인 삶을 지속하지 않도록 윤리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I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설교자의 관점에서 고찰해보고 또 그 대안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설교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최소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을 알았다. 즉 설교자들의 설교이해가 부족하고, 설교자들이 자신들의 설교 내용과 불일치하는 삶

46) 문시영, “공공신학의 교회, ‘교회윤리’의 교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88집(2013), 211.

을 살며, 설교를 목회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심지어 설교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는 설교자도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시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직면한 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다음 네 가지 길이 있음을 알았다. 즉, 먼저 설교자들이 기독교설교자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특별히 설교자가 설교의 주인이 아니라 전달자임을 바르게 인식함으로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설교자의 설교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영성과 설교 내용 작성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된 위기 극복 방법들을 확실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설교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설교자들의 설교 윤리 교육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서, 또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설교 능력을 강화함으로서, 한국교회와 사회에 새로운 소망을 제시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모든 설교 사역의 기초가 되는 설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또 목사 재교육 프로그램과 신학교에서의 설교 교육을 강화함으로서 설교자들의 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한국교회는 설교자로서의 바른 정체성과 필요한 능력들을 다양하게 겸비한 설교자들을 통하여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성수. 『성령설교』. 서울: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2009.
- 김금용. 『제3의 분석설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쿰란출판사, 2011.
- 김금용. 『청소년설교의 길잡이』. 서울: 쿰란출판사, 2012.
- 김금용. 「한국교회의 설교 도용에 대한 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14집, 2007.
- 김금용. 「한국교회의 위기와 설교학적 답변: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신학이해』 42집, 2012.
- 김금용. 「한국교회의 위기와 설교학적 답변: 회중의 경청을 중심으로」. 『신학이해』 44집, 2012.
- 김금용. 「한국교회의 위기와 설교학적 한 답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2집, 2009.
- 문시영. 「'공공신학'의 교회, '교회윤리'의 교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8집, 2013.
- 전병욱. 『새벽무릎』. 서울: 규장문화사, 1999.
-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1.
- “교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바닥”. 〈한국기독교공보〉(2013. 7. 27), 제5면.
- “빨간불 켜진 한국교회 목회자의 현실”. 〈뉴스플러스〉(2013. 6. 28)
- “핵폭탄보다 더 심각한 위협”. 〈불기둥〉(2013. 3. 3), 제3면.
- Baumann, J. Daniel.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Preaching*. 정장복 역. 『현대 설교학 입문』.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1.
- Brooks, Phillips. *On Preaching*. 서문강 역. 『설교론 특강』. 일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 Anderson, Ray S., ed. *Theological Foundations for Ministry*. Edinburgh: T. & T. Clark, 1979.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4.
- Broadus, John A.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s*. Revised by Vernon L. Stanfield.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9.
- Brooks, Phillips. *On Preaching*.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64.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ume II*.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Edinburgh: T. & T. Clark, 1875.

Grudem, Wayne.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4.

Lloyd-Jones, Martyn, *Preaching and Preachers*, London: Hodder & Stoughton,
1998.

Spurgeon, Charles H. *Lectures to my Students*, Fearn: Christian Heritage, 1998.

논문투고일: 2013. 10. 23.

심사개시일: 2013. 11. 13.

게재확정일: 2013. 12. 13.

• 국 문 초 록 •

한국교회를 위기로 몰아가는 설교자들의 문제점들을 분석해보면, 우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은 설교 이해가 부족하다. 둘째, 설교자들의 설교와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설교자들이 설교를 목회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넷째, 설교자들 중에는 설교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는 설교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교자들의 문제점들은 고쳐지고 또 극복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본 소고는 이러한 설교자들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설교자들이 기독교설교자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설교자들은 그들의 설교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교회는 설교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설교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한국교회의 위기, 설교자의 정체성, 설교 능력, 교육, 윤리
